

내 목장 사랑한다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결코 어렵지 않아

-내화목장(2007 최우수상 수상), 상에 연연하지 않는 한결같은 관리가 비결

취재 및 정리 : 이 희 영 (축산신문기자)

2007년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남 양산의 내화목장은 단지 상을 받기 위해 목장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천직으로 여기고 목장을 꾸려나가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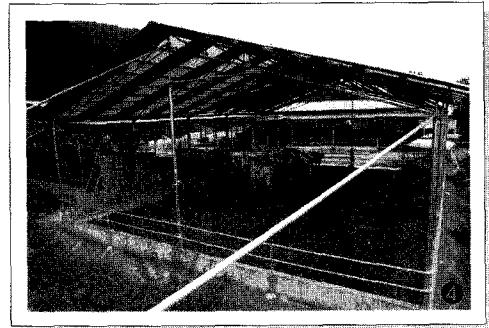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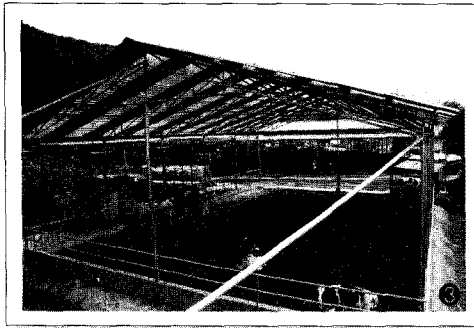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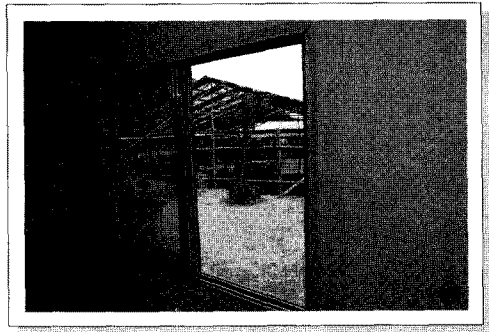
최근 2007년도 깨끗한 목장 최우수목장으로 선정된 양산의 내화목장을 다시 찾아가니 박호진, 강경화 대표의 손길로 목장은 더욱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집 앞에 텃밭으로 각종 야채가 심어졌던 공간은 푸른 잔디밭으로 변했고 2007년도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꽃들이 이제 목장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축사내부는 평소 박호진 대표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 불시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축사와 마찬가지로 거미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관리



내화목장은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최우수상 수상 이후 보다 아름답게 변모했으며 지금도 목장가꾸기는 진행되고 있다. 2007년도 수상 당시 목장 입구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 목장 주변 환경이 더욱 울창해 졌다. <위 : 2009년 모습, 아래 : 2007년 모습>



- ①② 아직도 남아있는 구 축사는 내화목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송아지를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호진·강경화 부부는 이곳에 기거하고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 ③④ 2004년도에 신축한 축사는 아직도 새로 지은 축사처럼 거미줄 하나 없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었다. 2007년도와 현재와 비교해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축사모습이다

되고 있었다.

내화목장은 2007년 당시 1천650kg이었던 납유량이 현재 2천200kg까지 쿼터를 증량해 목장 규모도 더욱 커졌다.

박호진 대표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최우수상 수상 이후 주변시선 때문이 아니라 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돼 목장 환경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목장이 자리 잡고 있는 양산의 토곡산이 양산지역에서 등산객들의 등산로로 인기를 끌면서 발길이 잦아지고 있어 냄새는 물론 환경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대표의 말이다.

수상 이후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

내화목장은 양산 토곡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다행히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내화목장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있는 구 축사와 2004년도에 신축한 축사가 위 아래로 있지만 아직도 새것처럼 관리가 잘되고 있다.

박호진, 강경화 부부는 아직도 1979년도 낙농업을 시작할 당시 지은 구 축사에서 기거하고 있다.

물론 목장 옆에는 잘 지어진 양옥집이 있지만 굳이 이곳에서 기거하는 이유는 축사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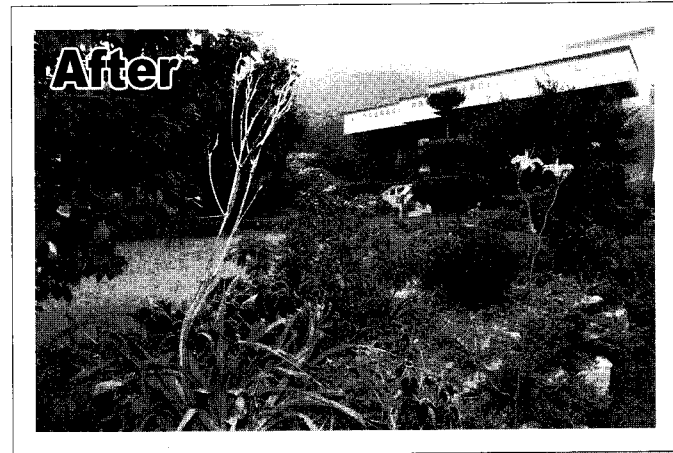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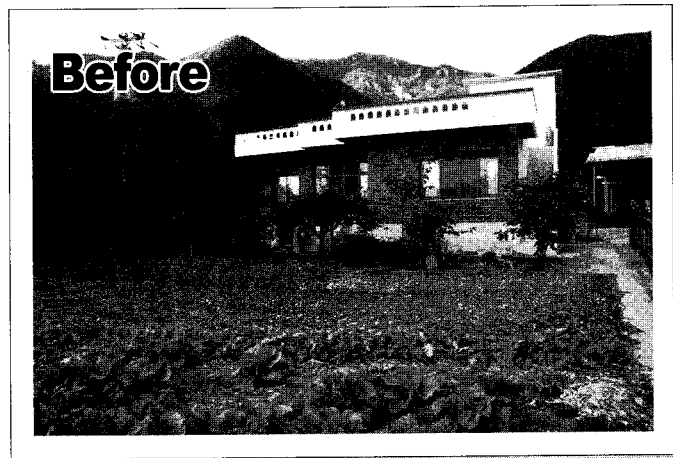
박호진·강경화 부부는 “목장에서만 4번 이상 이사를 했다”며 구 축사는 내화목장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처음 지은 축사에 다시 몇 평의 축사를 더 붙여 짓고 다시 몇 년 후 축사를 신축했던 모습이 외벽에서 그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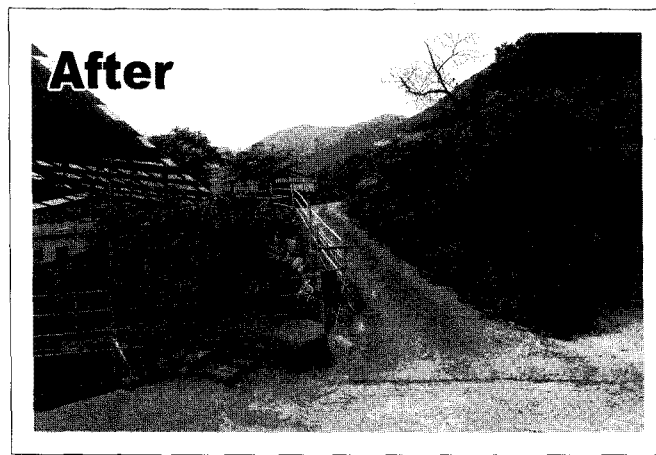
특히 이 구 축사에서는 아직도 송아지들을 키우고 있으며 축사 옆에는 박호진·강경화 부부가 기거하는 방이 하나 있다.

방에서 내려다보며 2004년도에 신축한 축사가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축사를 내려다보면서 젓소들을 살피고 있다.

또 2007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 축사는 거미줄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2007년 깨끗한 목장 수상 당시 텃밭으로 이용하던 공터는 수상 이후 진디와 각종 나무들을 심어 휴식공간으로 변모했다.



목장 주변 역시 다양한 야생화는 물론 각종 유실수로 둘러 쌓여 있어 2007년도 수상 당시보다 더욱 울창해진 모습이었다

이는 강경화씨의 반대로 변번이 무산되지만 거미줄이 보이면 살수차를 불러 축사 천정을 청소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박호진 대표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축사가 항상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에는 고추, 상추 등 각종 채소를 재배하던 텃밭은 수상 이후 잔디밭으로 조성해 놓고 파라솔도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부인 강경화씨는 “각종 채소들을 재배해 절마다 신선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어 텃밭으로 이용했지만 깨끗한 목장으로 선정된 이후 과감하게 텃밭을 포기하고 잔디밭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처음에는 신선한 채소들을 가꿀 수 없다

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잘 꾸며놓은 정원을 볼 때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깨끗한 환경은 물론 내실도 좋아져

2007년 당시 내화목장의 납유량은 1천650kg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천200kg으로 늘어났다. 대학 졸업반인 두 아들 은태, 은수 군에게 목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를 확대해야겠다는 박호진 대표의 생각 때문에 납유량을 늘렸다. 특히 최근에는 목장 뒤편에 1천평 규모의

축사를 더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호진 대표는 “이 축사는 내 화목장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축사”라며 축사를 지을 부지를 보며 매우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표가 축사를 새로 지으려는 이유는 FTA, 사료값 폭등 등 낙농을 둘러싼 환경이 불안해 단순히 목장만을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새로 짓는 축사는 두 아들과 함께 체험목장을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새로 지을 축사에는 젓소가 아닌 사슴, 토끼, 닭 등을 키울 예정이며 이는 체험목장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것이다.

내화목장의 이러한 희망은 단순히 희망에 그치는게 아니라 목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면 체험목장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3만여평의 목장 부지에는 밤나무 밭과 각종 유실수들로 둘러싸여 있어 체험목장은 물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여기에 양산은 물론 부산에서도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입지 면에서도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박호진 대표는 “과거에는 젓소만 잘 키우고 품질 높은 우유만 생산하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히 우유를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며 “두 아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목장을 만들어 물려주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내화목장은 목장을 물려주기 위해 목장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체험목장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사를 하나 더 지을 예정이며 목장 주변에는 밤나무 등이 있어 목장체험과 함께 농촌체험이 가능한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다.